

한국 근대건축의 궤적을 보여주는 목조교사와 벽돌조교사

고려대학교의 건축물과 역사3

보성전문 초기: 낙원동과 송현동 시대 1918~1934

수송동의 한옥교사 자리에 목조교사를 신축하며 큰 성장을 보였던 보성전문은 다시금 새로운 도약을 모색한다. 그리고는 1918년 9월, 12년을 함께 하던 보성중학과 작별하고 낙원동의 전 오성학교(五星學校) 교사로 이사했다.

낙원동 벽돌조교사: 1918~22

이 건물은 원래 1908년 설립된 애국문화계몽 단체인 서북학회 회관이었고 1910년부터 오성학교가 사용했는데, 보성전문이 이를 4년간 임차했던 것이다. 보성전문 이후에는 협성학교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이곳을 거쳐 갔고, 1956년에 건국대학교의 현 캠퍼스로 옮겨져 그 학교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 안암캠퍼스 이전 보성전문이 사용한 교사로서는 유일하게 현존하는 이 건물은 등록문화재 제53호로 지정된 건축문화유산이다.

설계자는 캐나다 건축가인 헨리 고든(Henry B. Gordon; 1855~1951)으로 알려졌는데(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2007), 그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선교사역과 관련된 건축일을 주로 맡았다. 그의 디자인으로는 승동교회(1904), 세브란스 병원(1905-10), 새문안교회(1907-10) 등을 들 수 있다.

반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인 낙원동 교사는 붉은 벽돌이 주조를 이루는 가운데, 모서리의 코너스톤(corner stone)이 구조적인 측면과 시각적인 측면을 보강하고 있다. 그리고 개구부 아치의 돌장식과 상하로 여닫는 새시 창(sash window)도 주요 디자인 요소다. 지붕은 사방으로 처마 선을 살린 우진각 형태다.

이러한 건축어휘는 18세기 초 영국에서 발전해 19세기 말 다양한 변이를 보이며 부흥했고, 일명 '퀸앤 스타일(Queen Anne Style)'과 관련한다. 이 양식은 미국 등 여타 나라에 영향을 미쳤고, 모더니즘을 수용하기 이전의 식민지 건축에도 많이 차용됐으며, 근대기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양풍 건축물에도 자주 발견된다.

이러한 양식적 속성에 더해 이 건물에서 크게 두드러진 요소는 중앙에 돌출된 3층탑이다. 아치 개구부로 형성된 1층과 2층은 각각 계단을 둔 출입구와 난간이 설

치된 베란다로 설계됐고, 3층에는 원형창을 두고 있다. 한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돔형 사각지붕은 건물 전체 지붕과 대비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탑을 중심으로 정갈한 좌우대칭을 이루는데, 우측 지붕 전면에 솟은 굴뚝만이 이 질서에 변화를 부여한다.

이 건물은 1901년 종로에 세워졌던 한성전기회사와 양식과 구성에서 닮은 꼴이다. 다만 낙원동 교사가 좀더 단순해 한층 소박한 맛을 보인다.

송현동 구 천도교본부

목조교사와 벽돌조교사: 1922~34

1922년 9월 보성전문은 낙원동을 떠난다. 새로운 목적지는 경북 구 영의 송현동에 있는 옛 천도교본부였다. 천도교 중앙대교당이 1921년 2월 경운동에 완공되면서 천도교본부가 이전했기 때문에 보성전문이 천도교의 구 본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 보급자리는 약 600평의 대지와 그 안에 선 두 동의 서양식 건물이었다. 건물은 모두 2층 규모였지만 각각 목조와 벽돌조라는 차이를 보인다. 이질적 건축물의 한 울타리 내 공존이다. 남아 있는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 목조 건물에는 교장실, 사무실, 교원실, 1학년 교실, 강당 겸 용의 합동교실이 있었고, 벽돌 건물에는 2, 3학년 교실이 있었고 전한다(유진오, 《養虎記》, 1977). 그리고 벽돌 건물 앞은 테니스 코트로도 사용했다.

목조 건물은 ㄱ-자 형의 꺾인 평면에 근간하며, 정문과 가까운 쪽 모서리에 출입구를 뒀다. 그리고 수송동 교사에서처럼 창문 이외의 부분은 수평 비늘벽으로 옷 입었다. 이 건물은 대칭성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인상을 준다. 특히 건물의 각 면이 다른 크기와 형태의 창문을 가짐으로써, 목조라는 점에서 수송동 교사를 연상시키는데 불구하고 그에 비해 정립되지 못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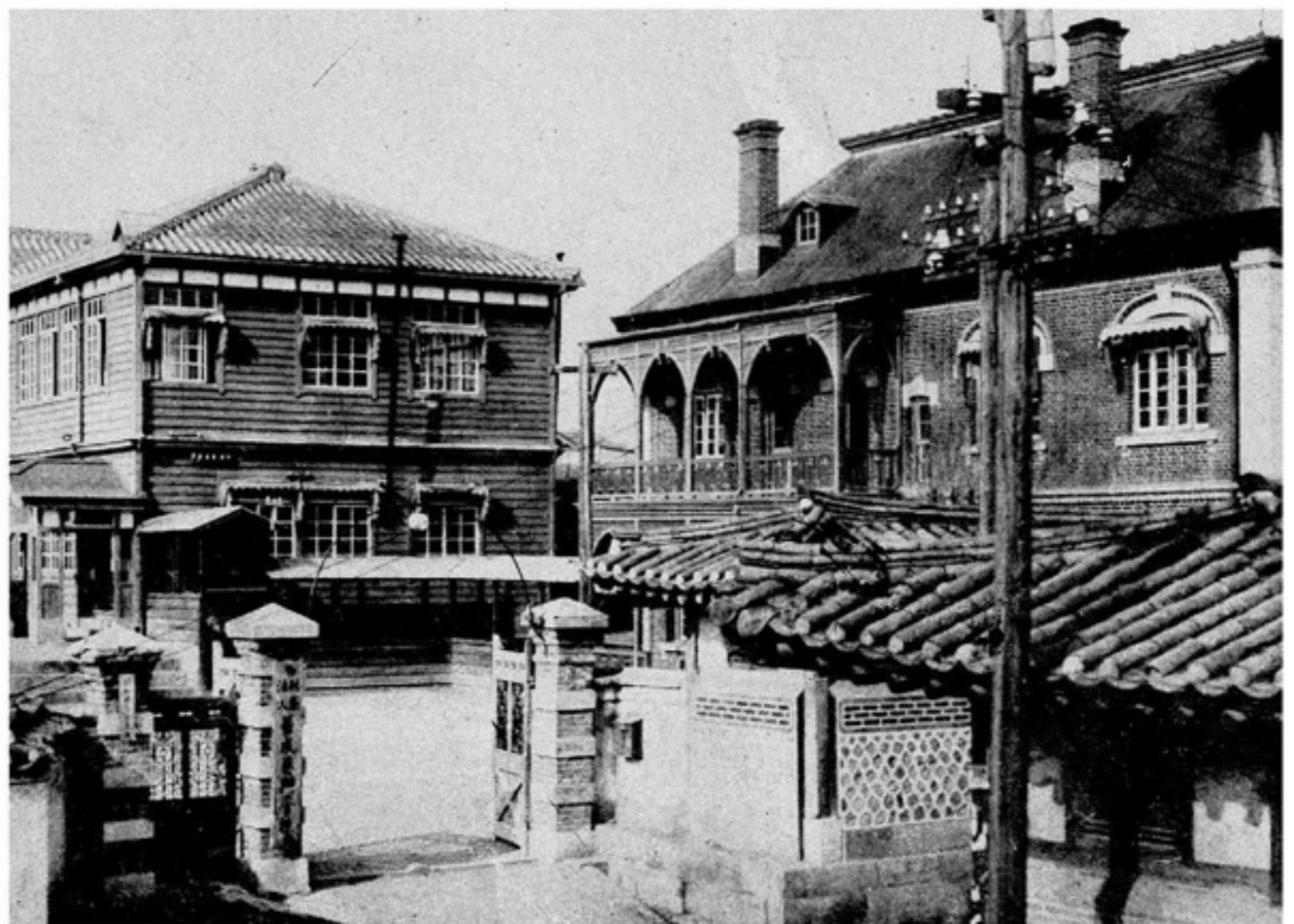
벽돌조 건물은 목조 건물보다 약간 뒤로 물러서서, 교문 안쪽의 바로 오른편 자리에 위치한다. 목조 건물에 비해 조금 작은 이 건물은 중앙으로부터 약간 좌측에 출입구를 뒀고, 창문의 배열도 대칭성을 벗어났다. 그러나 붉은 벽돌이나 창문 아치의 치장적 사용



전 오성학교(구 서북학회 회관)에 동지를 든 보성전문의 낙원동 교사. 붉은 벽돌이 주조를 이루며 모서리의 코너스톤이 구조적인 측면과 시각적인 측면을 보강하고 있다.



건국대학교박물관으로 사용되는 낙원동 교사의 현재 모습. 안암동 이주 전 보성 교사는 유일하게 현존하는 이 건물은 등록문화재 제53호로 지정된 건축문화유산이다.



목조교사(왼쪽)와 벽돌교사의 이질적 건축물로 구성된 송현동 교사. 지붕 덮인 통로로 연결돼 학생들은 외부로 나오지 않고도 두 건물 사이를 오갈 수 있었다. 우측 벽돌조건물에 보이는 베란다는 1925년경 제거돼 2층 아치창의 배열을 드러내게 된다.

이 두드러져 낙원동 교사를 상기시킨다. 그리고 낙원동의 코너스톤과 다르긴 하지만 모서리 기둥이 벽돌면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측면도 역시 흡사하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천도교본부 시절부터 덧대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베란다는 존재다. 이 베란다는 출입구 포치를 포함한 정면 좌측의 1, 2층 모두를 감싸고 있었다. 이로 인해 2층의 주요 조형 요소였던 아치 창문 세 개가 가려졌는데, 대신 베란다 면을 구획하는 아케이드가 안쪽 아치의 존재를 넉치지 말해주는 듯하다. 그러나 2층 아케이드의 리듬과 그 안쪽 아치창의 배열이 일치하지 않아 임팩트가 다소 산만하다. 이 아케이드의 리듬은 1층 개구부의 질서를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1925년경 이 베란다는 제거됐고, 1층에는 단순한 차양이 이를 대체했으며, 결국 2층 창문의 배열이 드러나 건물의 민낯을 볼 수 있게 됐다.

이 두 동의 건물은 별채지만 지붕 덮인 통로로 연결돼 일정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외부로 나오지 않고도 이를 이용해 두 건물 사이를 오갈 수 있다. 기단 위에 세워진 목조교사와 뒤로 후퇴해 있으나 무게감 있는 벽돌조교사 사이의 묘한 긴장이 이 통로를 통해 중재된 것이다. 이 점이 서로 다른 두 건물로 구성된 송현동 보성전문의 주요한 건축적 특징이라 하겠다.

보전 문패 내건 송현동 교사

학교 단독 건물이라는 의의 가져

한편, 1922년 4월 학교가 재단법인 사립보성전문학교로 인가됐는데, 교문의 명패가 이를 보여준다. 송현동 교사는 수송동에 비해 훨씬 협소한 운동장을 가졌지만, 문패가 암시하듯 보성전문만이 단독으로 사용했던 까닭에 의미가 컸다. 보성전문이 안암동으로 이주한 이후 송현동 교사는 마사회와 덕성여고가 차례로 사용했

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모두 철거돼 그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지금까지 서술했듯 초기의 보성전문은 수송동의 구 러시아어 학교 한옥 건물을 시작으로 낙원동과 송현동을 거치며 목조와 벽돌조의 서양식 건물을 교사로 사용했다. 이 건물들에 대한 고찰은 단지 고려대학교의 건축역사를 추적하는 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더 나아가 일제 치하 근대화됐던 한국건축의 궤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덧붙이자면, 현존할 뿐만 아니라 등록문화재로 보호받고 있는 낙원동 교사의 존재가 고려대학교에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듯한데,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태도.



김현섭(건축공92) 모교 건축학과 교수